
**고졸시대 정착을 위한
선취업 후진학 및 열린 고용
강화 방안**

2012. 7. 13

교육과학기술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
지식경제부 국방부 중소기업청
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

목 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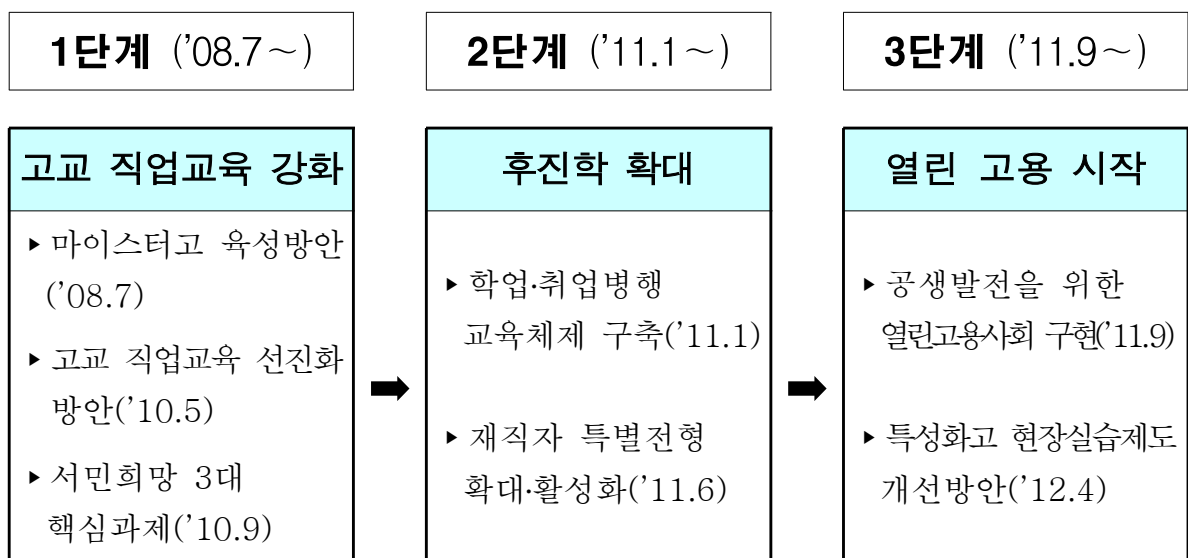
I. 보고경위	1
II. 그 간의 노력	2
(교육단계) 취업중심 고교 직업교육 강화	2
(졸업/취업단계) 고졸 일자리 확대	3
(취업후단계) 후진학 생태계 구축 및 열린고용 문화 조성	4
III. 성과 및 현장의 요구	5
① 성과	5
② 현장의 요구	6
IV. 제도화를 위한 정책과제	8
① 현장중심 직업교육 공고화	8
② 고졸 취업 분위기 확산	12
③ 후진학 생태계 활성화	15
④ 열린 고용 인사관리 확산	20
V. 향후 계획	23
VI. 과제별 추진일정	24

I

보고경위

- 고용상 학력차별, 과도한 학력추구로 인한 사회적 낭비, 현장 산업인력 고령화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 초기부터 고민
 - 사회전반의 고학력화로 인해 노동시장 진입연령이 높아지고 있어 생산활동인구 감소 추세가 더욱 심화될 우려
 - 체계적인 현장실습 등 산업의 수요를 교육에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실하여 직업교육의 질 저하

- '08년부터 고졸시대 정착을 위해 범 정부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, 성과가 가시화되는 중
 - 고교 직업교육을 취업중심으로 돌려놓고, 학력·학벌에 기반한 왜곡된 고용시장을 정상화함으로써
 -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학교·기업·사회가 상생발전 하는 토대를 마련



- 동 정책이 성공적으로 뿌리내려 향후에도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현장의 요구를 토대로 보완방안을 마련하여 보고

교육 단계

취업중심 고교 직업교육 강화

□ 직업교육 선도·취업명품 『마이스터고』 35교 지정 운영

- 교육과정을 산업수요 맞춤형으로 개편
 - * 두산중공업반(기계), 삼성LED반(전자), 하이닉스반(반도체) 등
- 기업협약을 통해 현장실습, 인턴 후 졸업과 동시에 100% 취업
 - * 1·2차 지정 : 21교 (3학년), 3·4차 지정 : 7교(1학년), 5·6차 지정 : 7교(개교 준비 중)

□ 취업중심·산학협력형 학교로 『특성화고』 개편

- 특성화고 학생의 희망사다리 구축위해 장학금 지원
 - * 학생 1인당 입학금, 등록금 평균 120만원 ('12년 총 3,160억원)
- 학생의 실무능력 배양, 취업처 발굴을 위해 산업체 경력을 가진 우수인력과 취업전문인력을 1,000명 확대 배치('11년 459명)
- 글로벌 역량강화를 위해 해외현장실습 기회부여('12년 429명, 66.5억원)
- 안전한 환경에서 내실있는 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실습제도를 개선 (표준협약서 개정 고시, '12.4.17.)
 - * 현장실습 매뉴얼 제작 배포, 현장실습 노동관계법 교육, 안전보건상 조치내용 구체화 등

□ 중등교육 단계 진로교육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

- 『진로진학상담교사』 제도를 도입('11.3)하여 3,000명을 중·고교에 배치('12년)
- 처음으로 학교급별 『진로교육 목표 및 성취 기준』을 개발하고, 학교에서 활용토록 배포·연수
- 진로검사 및 직업체험 활동 강화를 지원
 - * 커리어넷(Career Net) 진로검사('11년 237만 건), 중학생 진로체험('11년 44만명 지원)
 - * 『한국 잡월드』 개원('12.5월)으로 진로 체험 시설 확대

□ 공공부문의 고졸채용 장벽 완화

- 고졸자 공무원 채용을 위해 『지역인재 9급 추천채용제』를 신설 ('12년 100명)하고, 기능인재 추천채용을 확대('11년 53명 → '12년 100명)
 - * 기술직 9급 등 고졸자 채용권고제(20%이상) 도입, 16개 시 도 고졸(예정)자 200명 경력경쟁채용 진행 중
- 고졸자도 응시할 수 있도록 9급 공채 시험과목에 고교과목을 추가
 - * 행정직군 전체(25개 직류)에 사회, 수학, 과학 등 선택과목 추가
-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고졸자 채용여건 개선노력을 평가
 - * 직무분석 통해 전체 공공기관 정원의 27% 수준의 고졸채용 적합직무 발굴
 - * '12년 경영평가 기관 신규채용 인원의 22.6%를 고졸자로 채용 계획

□ 민간부문의 고졸채용 애로사항 해소 및 채용촉진 지원

- 특성화고, 마이스터고 출신자 신규로 증원채용 시 『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』 우대(채용 1명 당 1,500만원 → 2,000만원)
- 특성화고 졸업자를 채용한 중소기업에게 산업기능요원 우선 배정
 - * 산업기능요원 배정인원 : ('11년) 5,500명 ⇒ ('12년) 7,000명 ⇒ ('13년) 7,000명
- 고졸 『청년인턴제』를 확대('11년 1.2만 → '12년 2만)하고, 인력부족 업종에 취업 시 취업지원금 상향지원('11년 100만원 → '12년 200만원)

□ 고졸 취업확대를 위해 산·관·학 협력 취업지원활동 전개

- (중앙) 취업 매칭 시스템 운영(교과부·고용부)
 - * 고졸취업 활성화를 위해 산업계·기업체(대한상의, 중기중앙회, 조선협회, 삼성전자, 현대자동차 등)와 총 26회 MOU 체결
 - * Worknet의 “열린채용관”(’11.11~’12.6월말) 운영 : 특성화고 졸업자 17,621명 취업
- (지방) 시도교육청 주관으로 지자체, 지방고용센터, 지방중기청, 지방상의 등과 협력 MOU 체결
 - * 16개 시 도별 산 학 관 MOU 체결('09~'12) 완료, 45개 고용청과 1,296개 학교 기업체 MOU 체결

□ **후진학 여건 마련**

- 재직자 특별전형 제도 도입 및 규모 확대('10년 7교 → '12년 23교)
 - 특성화고 등 졸업생 중 3년 이상 취업경력자 정원 외로 선발
 - * 재직자 특별전형 모집인원 : 2%('11년) → 5%('13년) → 5.5%('15년)
 - * 동일계 특별전형 비율 축소 : 5%('11년) → 3%('13년) → 1.5%('15년)
- '재직자 친화형 교육과정' 개발을 위해 후진학 선도대학 재정지원
 - * 후진학 재정지원(총 44교, 63억) : 재직자 특별전형 지원대학 사업(18교, 12억), 산학협력 선도대학 사업(10교, 20억), 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(8교, 2.4억), 산업단지 캠퍼스조성(2교, 10억), 대학 중심의 평생교육 활성화(6교, 19억)
- 후진학 촉진을 위해 고졸 근로자 지원
 - 재직자 특별전형자에 『저소득층 우수학생 장학금』 지급('11년)
 - * ('11년 수혜인원) 91명, '12년부터 국가장학금으로 확대 개편
 - 근로자가 직업능력개발에 참여 시 고용보험 지원 강화
 - *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고용보험기금으로 계약학과(이공계 전문학사·학사) 교육훈련비 지원('12학년도 ~ , 5개교·23학과 지정)
 - * 근로자 학자금 대부사업(고용부) 대상자 선정시 중소기업 계약학과 학생 우선 선발 지원

□ **열린고용 문화 조성**

- 공공기관의 차별적 인사관리 제도 개선
 - 고졸입사 일정기간 경과후 대졸자와 동등 직위 부여 등 승진 보직 등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규정 개정
 - * (예시) 석유관리원 : 입사 4년후 승진, 급여지급 기준 등을 관련규정에 명시
- 열린고용 모범사례 발굴 및 포상
 - 열린고용 사회인식 제고를 위해 총 8회 포상 실시('11.10월~)

① 성 과

고졸 취업과 열린 고용 분위기가 확산되면서
 고졸 관련 고용지표가 개선되고, 우수사례도 지속 생성
 * “고졸 인재에 눈 뜬 것은 MB정부 功이다” (한국경제 사설, '12.5.23)

□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취업률 상승

○ 마이스터고 졸업생 취업 100% 가시화

- '13.2월 마이스터고 졸업예정자 84.8% 채용약정('12.3.1기준)
- * 평택기계공고 '13.2월 졸업예정자 취업 100% 달성 선포식('12.6.14)

○ 특성화고 취업희망자 취업률은 상승, 대학진학률은 감소

- * '12.2월 졸업 특성화고 취업희망자 취업률 : 63.6%('11년 10월) → 89.7%('12년 4월)
- * 특성화고 졸업자 대학진학률 : 73.5%('09년) → 50.2%('12년 잠정)

□ 노동시장에서 고졸 고용지표 개선

○ 고졸 채용규모가 증가하면서 고졸 고용률 증가

- * 고졸 고용률(15~29세) : 59.8%('11.9) → 60.9%('11.11) → 62.1%('12.1) → 61.6%('12.5)

○ 상용직, 관리·전문직 비중이 증가하는 등 고용의 질도 일부 개선

<순수 고졸자 고용률 증감추이(%)>



<고졸 청년층 상용직 비중 추이(%)>



자료: 통계청, 경제활동인구조사

주: 해당년도 청년층 2월 졸업자 중 입학예정자도 제외한 후 분석

□ 후진학에 대한 기업, 대학의 참여 시작

- 고려대, 중앙대, 한양대 등 우수대학이 재직자 특별전형 채택 ('13학년도, 총 45교 시행 예정)
- 고졸채용을 많이 한 기업들도 사내대학 설치 확대
 - * 현대중공업 등 2개사 사내대학 설치 추진('12.5월 설치신청)

□ 학력보다 능력과 성과중심의 열린 고용문화 형성

기업명	우 수 사 례
두산중공업	• 기술임원 신설, 생산직원의 직함을 사무직과 동일화 * (현행) 반장·직장·기장 → (개선) 대리·과장·차장·부장
CJ그룹	• 고졸채용 2배 증가, 계약직 사원 정규직 전환 추진
기업은행	• 고졸행원 부활('11년 특성화고 60명 채용)
한국수력원자력	• 고졸자도 입사 4년 후 대졸과 동등 대우
수자원공사	• 고졸자 승진상한을 대졸자와 동일하게 상향조정

② 현장의 요구

□ (학생 학부모)

- 고졸채용은 일시적 현상에 불과할 뿐, 다음 정부에도 지속성 있는 정책으로 유지되기 어렵다는 의견
- 학력에 따른 채용 임금 인사상 차별 존재 지속적 학력차별 개선과 열린 고용문화 정착 노력 요구
- 학부모는 여전히 자녀의 대학교육 이수를 희망하나, 취업 후 시간과 학비부담으로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을 지 의문
 - * 자녀에 대한 교육 기대수준('11년 교육여론조사, %):
고교(1.5), 전문대(5.9), 대학(60.4), 석사(18.9), 박사(12.0)

□ (학교 시도교육청)

-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취업 역량 강화 사업 지속 추진 요구
- 능력과 성과 위주의 열린 고용 문화가 확산되는 시점에서 초 중학교 단계부터 체계적 직업 진로교육 필요
- 고졸 취업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, 중하위권 학생, 특정분야 (농업 건설업 등) 에서는 취업난이 지속
 - * 고졸채용 시 학생부 성적을 상위 30~40%로 제한하는 관행개선 필요
 - * (관련분야 특성화고 관계자 면담) 농업, 관광업, 의료업, 건설업 등은 취업처가 다양하지 못하고 근무여건도 미흡(비정규직, 저임금, 단순보조업무 등)
- 남학생의 경우는 군 복무후 본격적인 일자리를 찾는 경우가 대부분이고, 대기업 등에서는 군미필자 채용을 기피

□ (기업 전문가)

- 대기업 금융권을 넘어 중소기업까지 취업분위기 확산 필요
-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을 감안, 사내 열린 고용문화 정착과 후진학 여건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정부 지원 필요
 - * '13년 마이스터고 졸업생 100%, 특성화고 졸업생 60% 취업 시 8만명 정도 취업할 것으로 예상
- 고교중심 직업교육 정책으로 전문대 직업교육 소외론 대두

총 평

국민적 호응도가 높고, MB정부 대표 브랜드인
고졸 취업 확대와 열린 고용 정책이 지속적인 동력을
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과 보완 개선을 요구

① 현장중심 직업교육 공고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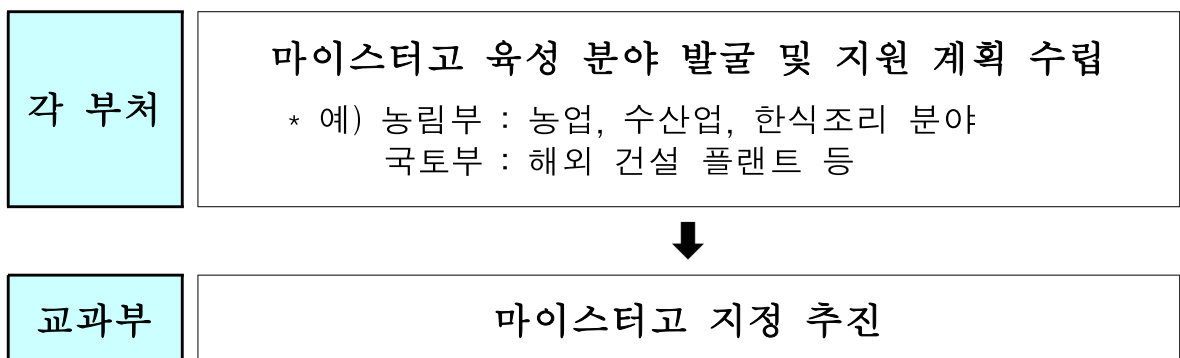
□ 중학교부터 진로교육 활성화

- '13년까지 학생 100명 이상 모든 중 고교(4,690교)에 진로교사 배치
- 현장성 있는 다양한 학교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 보급(총 20종)
 - * 「진로와 직업」 스마트 북, 초중고 및 특성화고용 진로체험 매뉴얼 등
- 학교 진로검사 지원 및 온라인 상담 서비스 확대
 - (교과부) 커리어넷(Career Net)을 국가진로교육 종합시스템으로 확대
 - * 진로검사 확대('11년, 237만 건→'12년, 492만 건), 연 5만 건의 사이버 상담
 - (고용부) 한고원 잡월드 고용센터간 협업으로 심리검사와 직업체험 연계
- 『교육기부』 참여 확대로 다양한 직업 체험 확대
 - 중학교 재학 중 1회 이상 직업 체험을 필수화('12년, 30억 지원)
 - 기업체의 교육기부를 활용, 학생의 직업체험 참여를 확대
 - * (사례) 외환은행 청소년 인턴십 체험단, 방학 중 고등학생 대상으로 미래 금융직업 체험 프로그램 운영('09년부터 매년 500명, 총 20회)
 - 자치단체와 협력으로 지역 연계형 직업체험 확대
 - * 서울시 강동구 진로직업체험센터 : 적성탐색, 진로포트폴리오, 체험기업 연결
 - 한국 잡월드를 활용하여 다양한 직업경험·자가진단·진로 설계의 장 마련

- 『학부모 진로 아카데미』 등 연수를 통해 학부모의 진로 및 직업에 대한 인식개선 추진
- 진로교육진흥법 제정 추진('12. 9월 정기국회 상정)

□ 마이스터고 지속 육성

- 마이스터고 정착을 위한 행·재정 지원체제 구축
 - 『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』에서 『마이스터고등학교』로 법령상 명칭 제도화(초 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(안) 입법예고중)
 - 마이스터고 안정적 재정 지원방안 강구(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, '12년 하반기)
 - 과학고 수준의 교원증원 배치, 교원 승진가산점 부여
 - 마이스터고 졸업생 추적조사 시스템 구축
 - * 동일 학생에 대한 중장기 추적 조사(취업, 후진학 및 상위자격 취득 상황 등)를 통해 사후관리 지원 방안 마련('13년~)
- 정부부처 주도의 Top-down식 마이스터고 지정 도입
 - SW 마이스터고 선정('12.9월)을 시작으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영 마이스터 양성이 필요한 FTA 대책 및 전략산업 분야 등



□ 범정부적 특성화고 지원체제 공고화

○ 인력수요 정부부처의 직접 지원 확대

- 5개 부처(중기청, 농수산부 등)에서 전 부처 참여로 확대

* 예시 : 국토부(건설, 해양플랜트), 문광부(관광, 문화콘텐츠), 복지부(의료 보건, 유아교육)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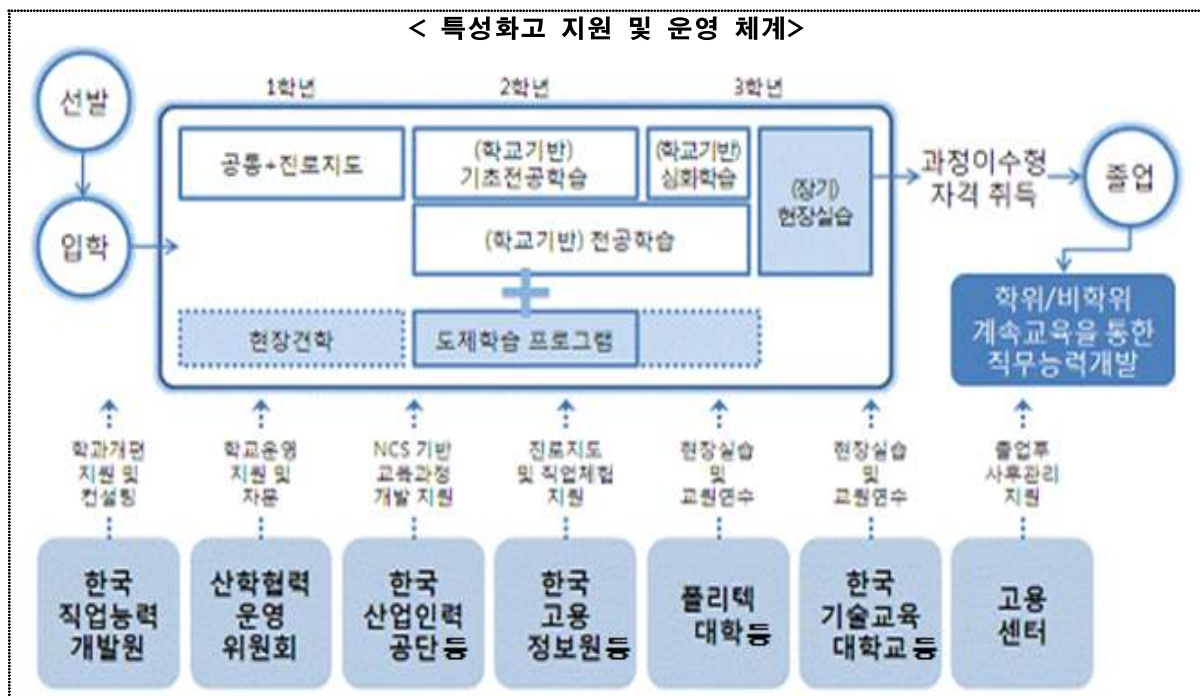
- 단순 재정지원(평균 1~2억) 위주에서 교육과정 개선 운영, 교원 역량 강화, 진로 취업지도까지 지원 범위 확대

○ 국가직무능력표준(NCS)에 기반한 특성화고 모델 개발

- 교과부·고용부 공동으로 운영모델 개발('12년 하반기)

- 특성화고 대상 시범운영 추진('13년)

* 『과정이수형 자격』 적용, 도제제도 기반 현장실습체제 구축, 취업지원시스템 구축



○ 교원 현장중심 직업교육 역량 강화

- 마이스터고 특성화고에 재직하는 보통교과(국·영·수 등) 교원을 위한 『직업교육 이해 연수』 과정 신설('13년)

- 전문교과 교원에 대해서는 산업체 현장 연수를 확대

현 행	개 선
공업계	타 계열
일부 부처(고용부, 지경부)	타 부처로 확산
부처관련 기관 (폴리텍, 한기대 등)	경제단체, 민간기업으로 확대

* 12년 상반기 시범실시후, 고용부 지경부 주도로 하반기 본격 실시

○ 산업체 실무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자율화

- 단기적으로 교육과정 자율학교를 지정 확대하고, 중·장기적으로 특성화고 교육과정을 일반고와 구분하여 별도 고시 추진

○ 현장중심 실습을 위한 여건 조성 및 산학협력 체제 구축

- 실습여건 실태 파악 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('12.8월), 공공기관·대학·기업 등의 실습 시설 연계 활용 체제 구축

○ 산업체 주도 직업기초능력평가 조기 정착

- 학생의 취업준비도를 평가하는 『직업기초능력평가』를 시행('13년)하고,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대체

* 직업기초능력 : 모든 직업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기초역량

- 대한상의 주관 시행으로 기업의 고졸 채용 시 활용 유도

○ 분야별 전문가, 기술사 등을 활용한 멘토링 추진('13년~)

- 교과부, 고용부, 중소기업청, 대한상의, 한국기술사회 등과 협력하여 (가칭) '열린 고용 서포터즈' 구성·운영

- 특성화고와 협력하여 진로지도 및 직업능력 개발 지원

* (사례) 열린 고용아카데미, 업종별 특화 프로그램 : 자동차업종(트로이카를 꿈꾸는 맥가이버 키즈), 요리(주방의 마법사! 셰프)

② 고졸 취업 분위기 확산

□ 범정부적 취업지원 강화

○ 고졸자 채용 문화 정착

- (공공기관 선도) 고졸 적합직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고졸 채용규모 확대

- * '12년 공공기관 고졸 채용규모 추가 확대 : 2.2 → 2.5천명 ('12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)
- * 고졸공채가이드라인 마련('12.7월) : 대졸자 하향지원 방지방안, 군미필 고졸자의 군입대에 따른 결원발생시 대체인력 허용 등

- (민간부문 참여 유도) 공개채용시 고졸 적합형 채용전형 실시 및 고졸자 별도 정원 설정 등 권고

○ 고졸 유망 일자리 발굴 강화

- 고졸자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직종·산업을 분석하여 학부모, 학생 등에게 임금·근로조건 등 관련 정보 제공

- * 발굴분야(예시) : 창조적 개발능력을 요구하는 소프트웨어 개발, 컴퓨터 프로그래밍 등 베이비부머 은퇴로 공백이 예상되는 뿌리산업 등의 숙련인력 분야 인구 변화에 따른 수요증가 고부가 서비스산업(헬스케어 등)

○ 산업별 여건에 따라 특화된 취업지원 강화

- 건설 문화 디자인 보건 등 고졸 취업 취약분야의 채용확대를 위해 관련 부처 협회, 기업 등과 고졸 채용 확대 협력

- 철강·자동차 등 업종별 일자리 창출 협의회 구성·운영

○ 직무역량 평가모델 보급

- 인·적성검사, 직무역량진단, 심층면접 등으로 구성된 평가기법을 개발하여 시범 실시하고, 기업체 활용 지원 서비스와 연계

□ 중소기업 취업 지원 및 일자리 매칭 강화

-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'청년과 함께 성장하는 중소기업'을 선정하고 매칭 강화('12년 하반기)
 - * (기업선정) 관계기관 합동, 선정기준 조정, 우수기업 정보 체계화
 - (매칭 강화) On/Off line을 활용, 우수기업 정보 제공, 기업·구직자 매칭
 - (정부지원과 연계) 중소기업 청년인턴·직장체험 프로그램 등과 연계 지원

- 중소기업의 고졸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 강화
 -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지원 확대
 - * 산업단지 통근버스 지원 확대(5천만원→1억 5천만원), 공단지역 기숙사 신축 지원 추진 등
 - 대기업이 협력사와 함께 인재를 채용하는 상생협력 지원
 - * 취업 이후 직무교육까지 연계, 경제단체와 정부가 협력하여 정례화 유도

- 권역별, 직종별 고졸 채용 진로박람회 개최('12년 하반기)
 - 인력수요 부처, 경제단체, 기업이 참여하여 실질적인 취업지원
 - * 지역 중소기업 잡페어를 통해 고졸 성공멘토와의 만남, 취업컨설팅, 현장채용 등 진행

- 일자리-고졸자 매칭 시스템 적극 가동('12년)
 - 16개 시도별 「학교-기업 취업 매칭시스템」 운영 활성화('12년)
 - 고용센터의 광역 인력매칭을 통해 학교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과 기업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간의 원활한 인력이동을 지원
 - * 서울북부고용센터: 특성화고 20개 밀집, 다른 지역 기업에 취업 지원
 - * 구미고용센터: 고졸자 부족, 강원도 등의 특성화고 졸업생 취업지원

□ 병역에 의한 취업으로 해소

-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자가 군 전역후 복직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에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 부여
- 고졸 전역자, 특성화고생에 대한 맞춤 훈련 실시('12.8월~, 200억원)
 - * 훈련기관을 공모하여 채용예정형 특화과정 운영
- 기술습득-군복무-취업이 연계되도록 군 특성화고 제도를 개선하고 산업기능요원·기술병 선발 시 특성화고 졸업생 우대

□ 고졸 취업문화 정착 및 인식 개선

- 중소기업 고졸 인재육성 전국 순회 캠페인 전개
 - 학교 관계자간 권역별 교류 및 취업촉진 토론회 개최('12년 하반기, 지방 상의 중기중앙회 주관)
- TV 등을 통한 고졸시대 홍보 강화 및 학력차별 인식 개선
 - * KBS 1TV 『스카우트』 시즌 2 제작 지원('12.5~8월, 14회), 고졸 성공 드라마 제작 협조요청 등
- 고졸 채용확대 우수기업, 후진학 장려기업에 대해 훈·포장 수여
 - * (고용부) 일자리 창출 지원 유공자 포상시 반영

3 후진학 생태계 활성화

□ 근로자의 후진학 장애 해소

○ 재직자의 학습부담 완화

- 재직 중 교육, 실습, 연구 및 근무경력 대학 학점 인정
 - * 고등교육법 제23조 개정 추진중(입법예고 완료, '12년 정기국회 제출)
- 재학연한 자율화·유연화되도록 학기당 정규 이수학점을 탄력적 조정
 - * (사례) 유한대학, 재학연한 상한 자율, 학기당 최저이수 단위 하향 조정, 신청 학점 기준 등록금 책정 등 '13학년도 시행준비 중
- 대학교육 이수 희망 재직근로자를 위한 예비과정 제도 도입
 - * 재직자 특별전형 대학 및 방송대학 인프라를 활용(on-off 병행), 수강료 지원 등
 - * (수강료) 25억원=3.5만명×1과목×7만원, (콘텐츠개발비) 10억원=20분야×5천만원
- 예비 후진학자에게 '강의자료 공개시스템(KOCW)'을 개방
 - * KOCW에는 동영상, 이러닝 콘텐츠 등 국내 총 3,000 강의 자료('12.2월 기준)가 탑재

○ 근로자의 학비부담 경감

- 국가장학금 I II유형을 통한 후진학 근로자 지원 유도('13년)
 - * (예시) “후진학자 우대”를 『국가장학금 II유형』 가이드라인으로 제공하여 대학이 후진학자에 대한 장학지원을 자율적으로 확대하도록 유도('13년)
 - * 국가장학금 유형
 - 유형 I (기초~3분위) : 7,500억(지급률 100~20%)
 - 유형 II (7분위 이하) : 10,000억(대학자율 설계)
- 지자체, 개별부처, 민간 외부 장학재단 사업에 후진학 근로자 대상 장학금 지원 신설 추진('12년 중 협의, '13년 신설)
 - * (사례) ① 경상북도 : 재직자 특별전형 입학생 1인당 첫학기 장학금 100만원 지원
 - ② 중소기업 소속 계약학과 재직자는 중기청(70%) 고용부(50%)에서 교육비 지원
 - * 교과부 등록 장학재단(8개) 등과 협의 중('12.6월)

- 중소기업 취업자·근로자 등 저소득층 재산형성 지원

* 이자·배당소득이 초과세되는 저축상품 신설 검토

-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후진학 근로자 또는 후진학 자녀 학자금 장학금을 지원할 경우 우대하여 열린 고용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적극 홍보

* 사내근로복지기금 : (근거)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, (운영현황'10년) 1,235개소 등록, (장학금 지원 법인) 481개소, 3,125억원, 143천명 지원

□ 후진학 경로 다양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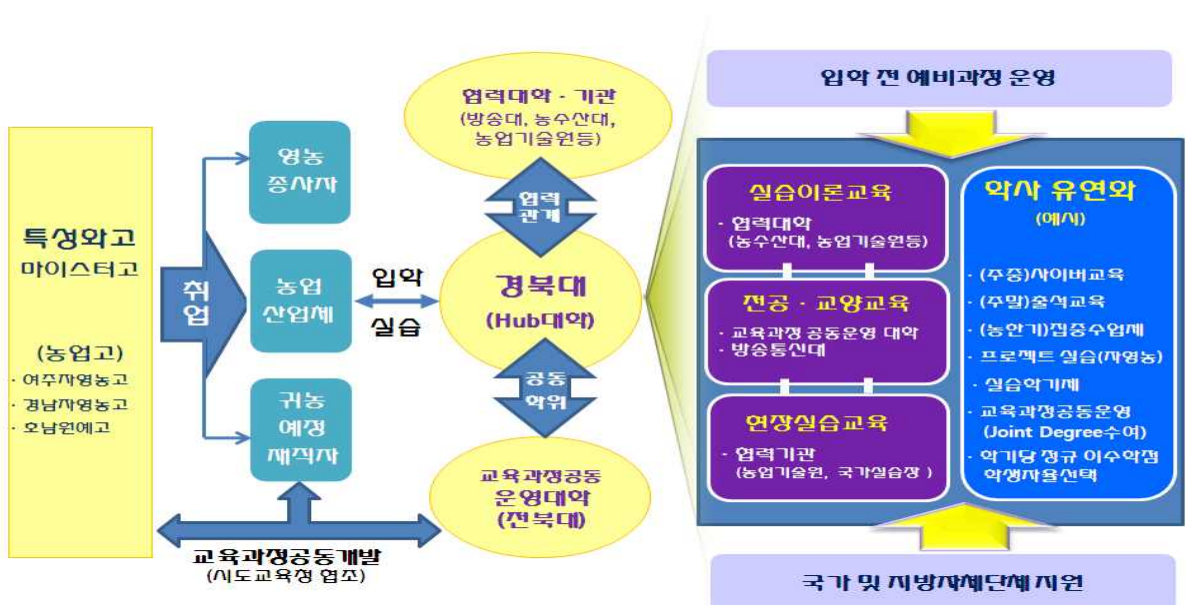
< 대학의 후진학 역할 강화 >

○ 재직자 특별전형 확대('12년) 23교 ⇒ ('13년) 50교

- 목표(45교)를 상향, 주요 사립대(고려대, 한양대, 중앙대 등) 및 국립대로 확산
- 개별대학에서 개설이 곤란한 분야의 특성화학과를 설치 운영하는 Hub 대학 지정('13년~)

* 대상 학생은 소수면서 전국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분야(수산·해양·농업 등)

《『농업분야 특성화학과』 대학 스마트 교육시스템 구성도(안)》



《후진학 특성화학과 운영(안)》

- (분야) 해양, 축산, 조경, 영상·제작, 관광, 금속 등 선정
- (운영형태) 전국적으로 관련 분야의 후진학 수요를 흡수하여 대표대학이 학과를 운영
- (교육과정) 대학간 교육과정 공동운영, 온/오프상의 교육운영, 집중이수수업 등
- (추진계획) ('13년) 시범대학 선정 및 교육과정 개발 등 → ('14년) 4분야 시범실시→ ('15년) 확대
- (소요예산) 4분야 × 5억원 = 20억원 * 농업, 해양·수산, 공업, 가사

- 산업단지 근로자의 후진학을 위해 “산업단지 캠퍼스” 및 “LINC의 후진학 선도대학”을 확대하고, 재직자 맞춤형 교육 강화
- 정규 대학의 후진학 참여 확대('13년~)
 - (방송대) 후진학 Hub 대학으로 육성하고, 방송대-일반대학 이공계 공동학위과정 운영('13년~)
 - * '14년까지 실무중심 융·복합 전공트랙(5개 전공) 개설, 관련 콘텐츠(60개 과목) 개발
 - (사이버대학) 고졸 재직자 수요를 반영한 이공계 학과 신설 개편 유도

< 전문대를 후진학 성인 직업교육기관으로 육성 >

- 세계수준의 전문대학(WCC: World Class College) 집중 육성
 - 산학협력 중점교수 확대, 현장실습 지원센터 설치 등 산학협력 인프라를 강화하여 현장적합성 높은 교육 실시
 - * WCC 지정계획(누계) : ('11년) 7교 → ('12년) 14교 → ('13년) 21교
- 전문대학 입학정원의 일정비율을 25세 이상 만학도 전형, 재직자 특별전형으로 정원 외 선발하도록 유도
- 『기술사관 육성 프로그램』 운영 강화
 - 특성화고-전문대간 연계 교육과정 단축(예: 5년 → 4 또는 4.5년) 모델 개발, 양질의 인재양성 및 조기 입직 추진
 - 학교와 산학협력을 체결한 기업을 가족회사로 지정, 특성화고와 전문대학 과정에서 현장실습 지원 및 채용 확대 유도

< 기업중심 후진학 활성화 유도 >

○ 계약학과 산업체 위탁교육 지원 확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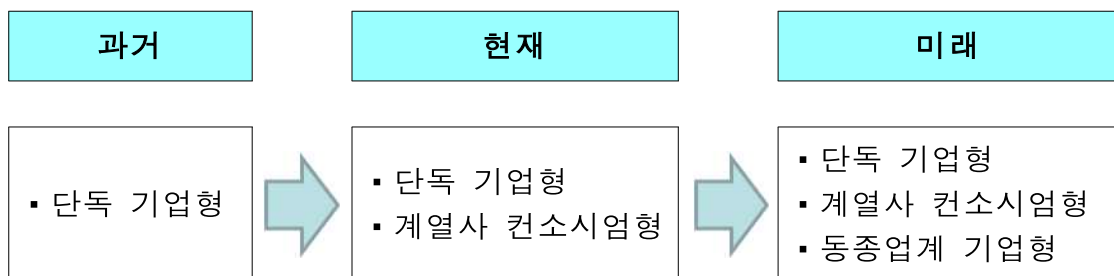
- (계약학과) 이·공계열 분야를 중심으로 고용보험 지원 확대
- (산업체 위탁교육) 학과개설, 입학요건 완화 및 탄력적 교육 과정 운영 지원

* (산업체 위탁교육) 고교-대학-산업체 협약시 9개월 이상 재직경력 입학규제 폐지
(사례) ‘한국외식과학고-경민대학-플라자호텔’

○ 학위과정 사내대학 활성화

- 동업자대학 (동종업계 중심의 전문분야별 대학)을 사내 대학의 한 유형으로 제도화

< 사내대학 설치 유형 >



* (동종업계 기업형) 다수·개별 은행이 금융연수원 또는 은행연합회를 활용 학위과정 개설

- 입학대상을 **협력업체 근로자로 확대**(’12년 평생교육법 개정 추진)
- 컨소시엄형·동종업계 사내대학 고용보험 환급 가이드 제공(’12년~)

○ 직무역량 확대를 위해 근로자의 비학위 능력개발을 지원

- 경제단체 기업 정부 등이 공동으로 **기업대학 모델을 개발, 확산** 하고 **사업내 직업훈련**으로 지원

* 사례 : LG 경리대학(LG), 현중기술대학(현대중공업)

□ 후진학 활성화 지원 및 질 관리 체제 구축

- **고졸시대 포털사이트**(12.8월 개통예정) 활용, 후진학 대학과정 홍보 강화
 - * 특성화고 포털사이트(www.hifive.go.kr) 후진학 구성(안) : 학생·학부모·기업체 등 수요자별 정보(대학 학과·채용기업)제공, 검색·위치안내 서비스 및 사이버 컨설팅 등
- 대학의 후진학 인력 지원(조교 등) 및 담당자 인센티브 제공
 - 재직자 특별전형 대학 및 후진학 선도대학에 **조교 우선 배정**(13년~)
 - **야간·주말 수업담당 교수의 수업시수 우대 협조 요청**(13년~)
 - * 주말·야간에 강의 수업시수는 주간강의 수업시수 1.5~2배로 인정
- **후진학 지원센터 구축·운영**(13년~)
 - 대학 및 학생의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상담·컨설팅 실시
 - 대학 전문대학협의회와 협력, 후진학 정보공유 체제 구축 등
- **후진학 대학 간 학점 교류 등 협약체결 지원**
 - 인사이동에 따른 학업중단 및 학업부담 완화
- **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(Best HRD)으로 인증하고, 고교 우수 인재가 입사 지원하도록 홍보**
 - * Best HRD(Human Resources Developer:인재개발 우수기관 인증제) : 공공·민관기관이 능력중심으로 인재 채용 관리시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으로 정부가 인증
- 대학 자체평가 항목으로 후진학 제도 운영 실태를 포함하고, 점검결과를 **매년 대학평가결과에 반영·공시**하도록 유도(13년~)

4 열린 고용 인사관리 확산

□ 능력중심 인사관리 정착 지원

- (공공기관 선도) 공정경쟁 조성에 적합한 인사, 보수제도 개편방안 마련('12년 말)
 - 과도한 임금격차 방지, 승진장벽 해소 등 공정경쟁 여건 조성
 - 후진학 지원 및 다양한 성장경로 보장 등 능력발전 제도적 뒷받침
 - * 일정기간 후 기술·관리직 선택기회 부여, 각 직종별 보직경로 제시
- (민간기업 자율참여) 업종별로 임금·직무 개선 모델을 보급하고, 컨설팅 서비스 제공
 - 우수기업에 대한 포상제도를 도입하고, 수상기업에 대한 행·재정적 지원제도 마련
- (인프라 구축) 임금·직무 개선 관련(일터혁신) 컨설팅 기능 강화 등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
 - * 열린 인사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및 보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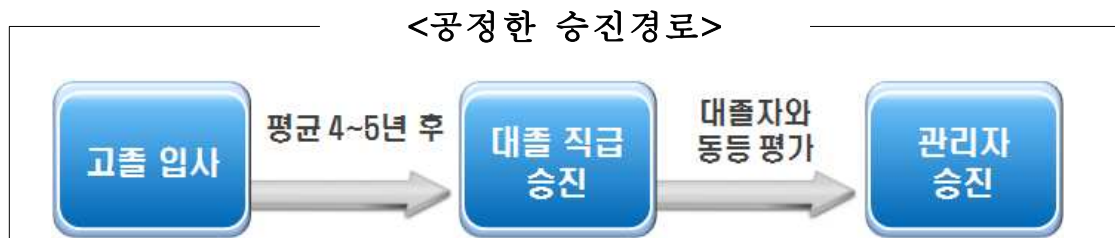
□ 일하면서 능력개발

- 고졸 신입직원의 원활한 직장 적응을 위해 현장훈련 지원 강화
 - * (현재) 집체+현장훈련시 지원 → (개편) 고졸 신입은 현장훈련만으로도 지원
- 국가직무능력표준(NCS)으로 '평생경력개발경로'를 개발, 기업에 배포하여 숙련에 맞는 인사관리 지원
 - '경력개발경로' 상위직위로 이동할 수 있도록 고급 훈련과정 확대

- 일과 훈련을 병행할 수 있는 기회 확충
 - 기업·업종별 협회가 대학의 컨설팅 지원을 받아 주도적으로 교육과정 설계
 - * 이론교육(30~40%) + 현장교육(50% 이상) ⇒ 학점 취득 (산기대 계약학과 시범운영)

□ 성공경로 다양화

- 고졸자가 취업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대졸자와 동등한 직위로 승진하여 관리자까지 진출할 수 있는 승진경로 마련



- 창의적 아이디어를 구체화하여 추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창직을 지원(고교 창조캠퍼스 확대)

□ 열린 고용을 위한 사회적 인식 변화 유도

- (국민참여형 홍보강화) 기업 및 고졸취업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(고졸취업 성공담 UCC 홍보 등)
 - 기능경기대회를 온 국민이 참여하는 열린기능경기대회 로 전환
- (능력중심 사회 여건 조성) 유망 숙련기술인 육성, 산업현장 인식 제고 등 숙련기술 우대 풍토
 - 우수 숙련기술인 선정체계 개편("명장 꿈나무"→"예비 대한민국 명장"→ "대한민국 명장" 으로 단계화)
 - '산업현장교수단'을 확대하고 종합 HRD 서비스 제공
 - * (학교) 현장실습지도, 기업연계, 진로지도 (중소기업) 기술 인적자원 개발 진단 및 컨설팅, 적합훈련설계, 현장훈련지도, 기술지원 등

지속추진 기반 구축

◆ 사회적 역량을 결집하고 『열린고용』 정책 의지를 제도화함으로써,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

○ (민관 협력체계 구축) 경제계와 열린 고용사회 구현을 위한 협의체 구성·운영

- 마이스터고·특성화고 교장단과 협의 채널 정례화

➔ 향후, '학력차별'을 넘어 노동시장 내 각종 차별없는 고용관행 구축까지 활동 범위 확대

○ (국가적 책무 제도화) 고용정책기본법 등에 “열린고용 사회” 구현 의무 명시화

* 열린 고용사회 구현 계획 수립, 지원정책 마련, 이행상황 점검 등

☞ 고용정책기본법 법 조문(예시)

제6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)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11. 학력에 따른 노동시장내 각종 차별을 해소하고, 능력중심의 채용 및 인사관리 정착에 관한 사항

□ (국경위) 추진과제의 지속적 모니터링을 위한 체제 구축

- 고졸취업·열린고용에 대한 부처별 계획 추진상황 점검 등 컨트롤 타워 역할 담당
 - 분기별로 과제별 추진상황을 점검, 타 부처 연관과제에 관련해 추진이 미흡한 분야에 대한 부처 이해관계 조정 확정

□ (각 부처) 고졸시대, 열린고용 관련 계획 수립

- 소관 과제별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국경위 제출
- 수립된 계획에 따라 과제를 추진하고 국경위와 협조

□ 2013년 예산안 반영 추진

- 2013년 예산편성시 과제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 반영 추진

VI

과제별 추진일정

1 현장 중심 직업교육 공고화

추진과제	추진일정		관계부처	
	임기내	중장기	주관부처	협조부처
(1) 중학교 부터 진로교육 활성화				
① 진로교사 확대 배치		○	교과부	
②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	○		교과부	
③ 진로검사 지원 및 온라인 상담서비스 확대	○		교과부 고용부	
④ 교육기부와 연계한 직업체험 확대	○		교과부	
⑤ 한국 잡월드를 활용한 진로설계의 장 마련	○		고용부	
⑥ 학부모의 진로 및 직업에 대한 인식개선 추진	○		교과부	
⑦ 진로교육진흥법 제정 추진	○		교과부	
(2) 마이스터고 지속 육성				
① 마이스터고 명칭 법령 규정	○		교과부	
② 마이스터고 안정적 재정지원 대책 마련	○		교과부	
③ 과학고 수준의 교원 증원 및 우대		○	교과부	
④ 마이스터고 졸업생 추적조사 시스템 구축		○	교과부	
⑤ 정부주도 Top-down식 마이스터고 지정 확대	○		교과부	전부처
(3) 범정부적 특성화고 지원체제 공고화				
① 인력수요 정부부처의 직접 지원 확대	○		교과부	전부처
② 국가직무능력표준에 기반한 특성화고 모델 개발	○		교과부 고용부	지경부

추진과제	추진일정		관계부처	
	임기내	중장기	주관부처	협조부처
③ 보통교과 교원 직업교육 이해 연수 실시		○	교과부	
④ 전문교과 교원 현장 연수 확대	○		교과부 고용부 지경부	전부처
⑤ 산업 실무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 자율화		○	교과부	
⑥ 실습여건 개선 및 산학협력체제 구축	○		교과부	
⑥ 산업체 주도 직업기초능력평가 조기 정착		○	교과부	대한상의
⑦ '열린 고용 서포터즈' 운영		○	고용부	

2 고졸 취업 분위기 확산

추진과제	추진일정		관계부처	
	임기내	중장기	주관부처	협조기관
(1) 범정부적 취업지원 강화				
① 공공기관 선도 고졸자 채용 기조 정착	○		기재부	
② 민간부문 고졸 적합 채용 전형 실시 및 별도 정원 설정 권고	○		고용부	
③ 고졸 유망 직종 산업 등 일자리 발굴 및 안내	○		고용부	
④ 취업 취약분야 취업지원체제 구축	○		교과부	관련부처
⑤ 업종별 일자리 창출 협의회 구성 운영		○	고용부	
⑥ 직무역량 평가모델 개발 및 기업 활용 보급		○	고용부	
(2) 중소기업 취업 지원 및 일자리 매칭 강화				
① 청년과 함께 성장하는 강소기업 선정 및 취업 강화	○		고용부 중기청	전부처
②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지원		○	고용부	
③ 중소기업 고졸 취업자 현장훈련 지원	○		고용부	
③ 권역별, 직종별 고졸 채용-진로박람회 개최	○		교과부 고용부 중기청	

추진과제	추진일정		관계부처	
	임기내	중장기	주관부처	협조기관
④ 학교-기업 매칭 시스템 운영 활성화	○		교과부 고용부 중기청	경제단체
⑤ 고용센터 주관 광역단위 일력 매칭	○		고용부	교과부

(3) 병역에 의한 취업애로 해소

①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졸업자 군 전역후 복직 시 중소기업에 인센티브 부여	○		기재부	
② 고졸 전역자 특성화고생에 대한 맞춤훈련	○		고용부	
③ 군 특성화고 제도 개선	○		국방부	
④ 산업기능요원 기술병 선발시 특성화고 우대	○		국방부	

(4) 고졸 취업문화 정착 및 인식 개선

① 중소기업 고졸 인재육성 캠페인 전개	○		교과부 중기청	중기중앙회
② TV 등 고졸시대 홍보 강화	○		교과부 중기청	
③ 고졸취업 우수기업 훈·포상	○		고용부	교과부

3 후진학 생태계 활성화

추진과제	추진일정		관계부처	
	임기내	중장기	주관부처	협조부처
(1) 근로자의 후진학 장애 해소				
① 재직중 교육 연구 및 근무경력 등 대학학점 인정		○	교과부	
② 대학 재학연한 자율화·유연화		○	교과부	
③ 후진학 근로자 대학교육 예비과정 도입		○	교과부	
④ 강의자료 공개시스템 예비 후진학자 개방		○	교과부	

추진과제	추진일정		관계부처	
	임기내	중장기	주관부처	협조부처
⑤ 국가장학금 제도에 후진학 근로자 지원 방안 마련		○	교과부	기재부
⑥ 지자체, 부처, 민간장학재단 장학금 지원		○	고용부 중기청	
⑦ 중소기업 취업자 재산형성 지원		○	기재부	교과부 고용부
⑧ 기업 사내복지제도 후진학 친화 개편	○		고용부	

(2) 후진학 경로 다양화

① 재직자특별전형 확대	○		교과부	
② 특성화학과 Hub 대학 지정		○	교과부	
③ 산업단지 후진학 선도대학 확대		○	교과부	
④ 방송대 후진학 Hub 육성		○	교과부	
⑤ 사이버대학 이공계 학과 신설 개편 유도	○		교과부	
⑥ 세계 수준의 전문대학(WCC) 집중 육성	○		교과부	
⑦ 전문대 재직자특별전형 선발 유도		○	교과부	
⑧ 『기술사관 육성 프로그램』 운영 강화	○		교과부 중기청	
⑨ 계약학과 산업체 위탁교육 지원 확대		○	고용부	
⑩ 산업체 위탁교육 대학 입학요건 완화	○		교과부	
⑪ 『동업자대학』을 사내대학 유형으로 제도화		○	교과부	
⑫ 사내대학 입학대상 확대	○		교과부	
⑬ 컨소시엄형 동종업계 사내대학 고용보험 환급 확대 및 가이드 제공	○		고용부	
⑭ 기업대학 모델 개발 확산 및 지원	○		고용부	

추진과제	추진일정		관계부처	
	임기내	중장기	주관부처	협조부처

(3) 후진학 활성화 지원 및 질 관리 체제 구축

① 고졸시대 포털사이트 활용 후진학 홍보 강화	○		교과부	
② 대학 후진학 인력 지원 및 인센티브 제공		○	교과부	
③ 후진학 지원센터 구축 운영		○	교과부	
④ 후진학 대학간 학점 교류 및 협약 지원	○		교과부	
⑤ Best HRD 기업 인증		○	고용부	
⑥ 후진학 운영 실태 대학 자체평가 반영 및 결과 공시		○	교과부	

4 열린 인사관리 확산

추진과제	추진일정		관계부처	
	임기내	중장기	주관부처	협조부처

(1) 능력중심 인사관리 정착 지원

① (공공기관) 후진학 및 공정경쟁 조성에 적합한 인사 보수제도 개편	○		기재부	각부처
② (민간기업) 임금 직무개선 모델 보급 및 컨설팅	○		고용부	

(2) 성공경로 제시 및 다양화

① 숙련에 맞는 인사관리 지원 및 경력상승 훈련 과정 확대		○	고용부	
② 고졸의 창조적 도전 지원		○	고용부	

추진과제	추진일정		관계부처	
	임기내	중장기	주관부처	협조부처

(3) 열린 고용을 위한 사회적 인식 변화 유도

① 우수 숙련기술인 선정체계 개편		○	고용부	
② 산업현장교수단 구성 운영 확대		○	고용부	

(4) 열린 고용 지속추진 기반 구축

① 민관 협력체계 구축	○		고용부	각부처
② 고용정책기본법에 열린 고용사회 구현 의무 명시		○	고용부	